

# 익산시, 66개 정책과제 선정 추진

###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일자리·도시관리공단 설립 등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올해 66개 정책과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시는 정현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41개 정책과제별 이행실적 보고와 당초 목표대비 우수 추진과제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과제는 시민행복도 제고 공약과제, 2019년 시정운영 방향 직결 사업, 시민의 요구가 크거나 지역이슈가 되는 과제 등을 중심으로 내부 컨설팅을 거쳐 66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25개 사업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일자리 정책 ▲5백만 관광도시 조성 ▲효 문화도시조성 ▲공공승마장 및 VR달 산업 체육관 조성 ▲KTIX 익산역 대중교통연계체계 구축 ▲도시재생뉴딜 사업 ▲신청사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분양률 제고 및 2단계사업 추진 등)은 매주 진행되는 간부회의

를 통해 추진상황이 점검되며 중점 정책과제로 분류해 관리된다.

또한 이번 보고회를 통해 보고된 41개 정책과제 ▲도시관리공단 설립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익산시 푸드플랜 수립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등)은 분기별 보고회와 월별 서면보고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일반 정책과제로 분류해 관리된다.

전체 정책과제는 연간 2회 평가되며 평가항목은 과제의 목표달성 정도 등 3가지 항목으로 사업기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키거나 급년 최초 적용되는 신규 프로그램, 도전적인 목표제시를 통해 우수성과 달성 등 이행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익산시는 올해 66개 정책과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을 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정책과제는 보고를 위한 과제가 아닌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업무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부서장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 정책과제는 급년 최초

도입되어 부서장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시책으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우수사례는 각 부서에 전파하는 등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미국 타코마시의 우다스 시장이 군산시청을 방문했다.

## '40년 이어온 진한 우정 재확인'

### 미국 타코마 우다스 시장 일행 '자매결연' 군산 방문

미국 타코마시의 우다스 시장 일행이 군산시와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일 군산시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우다스 시장 일행은 기관방문, 기념행사, 도시시찰 등 변화하고 있는 군산시를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인준 시장은 우다스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에 대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되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홍보했다.

특히 40년 동안 이어져온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분야별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후 우다스 시장 일행은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김경구 의장과 군산시의회 현환과 양 도시의회의 교류방안을 모색했다.

시청 방문을 마친 우다스 시장은 은파호수공원에 있는 군산-타코마 교류 30주년 기념비 옆에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는 동백 나무를 심었다.

'친선·파트너와 동행'이란 주제로 진행된 기념사진전에서는

평소 한국 전통의복에 관심을 보였던 우다스 시장을 위해 시에서 특별히 준비한 한복을 입고 강시장 내외와 함께 관람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방문 3일차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시작으로 시간여행마을, 새만금, 고군산군도 등을 시찰하며 군산의 역사와 자연환경, 관광·산업 자립 등을 둘러보며 군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타코마 시장일행은 한국에서 3박 4일 전 일정을 오롯이 군산에 머물면서 40년 지기인 군산을 이해하고 4월 4일 귀국길에 오른다.

군산시의 첫 국제자매도시인 타코마시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철도, 항만,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등 교통의 요지로 가장 살기 좋은 지역과 같이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 총 4개국 17개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해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국제교류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해경, 해양안전 정책 실현 자문위원회 개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실질적인 해양안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책을 실현하고자 2019년도 제1차 정

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규위원인 박찬후 롯데주류 군산공장장과 엄기배 선광 군산지사장에 대한 위촉식 등의 식전 행사도 진행됐다.

한창범 정책자문위원장은 "해양안전과 바다종사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군산해경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정원 서장은 "국민의 신뢰받는 해

안안전과 치안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정책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격려의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는 자문과 협의체 역할로서의 소임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2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내역이 통보된 6,716 가구이다.

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최신 인적정보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4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자동 반영되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나은정 과장은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복지대상자의 관리는 물론 탈락되는 수급자 긴급지원 등을 모색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 익산시, 4대 종단 지도자와 지역화합 논의

익산시(시장 정현을)에서는 3일 지역 화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4대 종단 화합과 소통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선 목사(익산 기독교연합회장), 민용화 일행스님(익산사암연합회장), 배현송 교구장(원불

교중앙교구장), 김광태 신부(익산지구장)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지역 사회 현안인 인구늘리기와 기업유치,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장애인학생체육대회 개최 등에 대해 4대 종단에서 적

극 힘을 실어주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4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역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종교계에서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 최종 선정

### 익산시, 농식품부로부터 '상' 등급 받아 5000만원 지원받아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농식품부가 주관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응시한 31곳 기초·광역자치단체 중 22곳이 선정됐다.

익산시는 '상' 등급을 받아 선도지자체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푸드플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생산기반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했다.

주말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다양한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해 지역 푸드플

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먹거리 순환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 지역 국회의원인 이춘석 의원과 조배숙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선도지자체 선정에 큰 힘이 되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익산시 푸드플랜 사업이 추진동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 익산시 합열농공단지 지번 확정

익산시는 합열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새로운 지번을 확정하는 지적공부 발급을 시작했다.

확정된 40필지는 ▲합열읍 29필지(24만4,986.9㎡) ▲용안면 11필지(8만3,494.7㎡)이며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는 ▲합열읍 196필지 ▲용안면 119필지 등 315필지다.

합열농공단지조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 측량을 통해 도시사의 측량성과 검사를 거쳐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을 확정했다. 양현석 합열출장소장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며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의 등적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